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15, 애가와 기독교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5회 애가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애가의 직접적인 본문을 남겼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애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1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가와 대응되는 신약성경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과 41절부터 44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며, 예루살렘이 겪은 고난 때문애가 아니라 앞으로 겪을 고난 때문에 우십니다.

그러므로 애가에서는 뒤를 돌아보지만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십니다. 그는 우리가 애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슬픔의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약간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느니라.

참으로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성벽을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면으로 가두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네 자녀를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때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입술에서도 비슷한 죄책감과 슬픔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가를 요약하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Zondervan Handbook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애가는 기원전 58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을 애도하는 다섯 곡의 애가 모음집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유일한 논쟁은 그것이 586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주석의 문제이고, 우리는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며, 여기서는 매우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Brevard Childs의 구약 입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책의 전체 제목은 '성경으로서의 구약 소개'입니다. 여기서 그는 해석학적 접근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보다는 책에서 영구적인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Childs가 쓴 것입니다. 애가서는 역사를 견딜 수 없게 된 모든 세대의 신자,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요. 그는 그것을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 요점인 애가는

다양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고난에 민감하십니다. 그것은 멘토와 5장에서 감히 기도하러 나온 회중들에게서 매우 많이 암시된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에 민감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애가에서 한 번 이상 발견한 그 청원을 매우 많이 기억합니다.

보고 또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로 넘어가면 비슷한 진술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감독자들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 등으로 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제 나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멘토가 갖고 있었고 회중이 붙잡았던 근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감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교회법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애가에서 읽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권고의 출애굽기 12장 15절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멘토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전도서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기본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서 2장과 6절에 있습니다. 빨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장과 6절입니다. 제대로 해봅시다. 3장과 4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시간도 있고 다른 시간도 있습니다. 나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해 그러한 시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애도할 때라면 애도하고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간의 슬픔에는 매우 많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도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례식 애도의 강조점이 인간의 슬픔의 필요성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우리는 슬픔에 대한 긴 설명으로서 애도의 영적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책이 필요해요. 이 책은 우리를 위한 책이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점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필요성입니다. 외국어로 된 것 같은데 영어로 번역된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Sufferin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Dorothee Surla라는 여성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통과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책의 3장은 고난과 언어라고 불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언어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애도의 언어, 울음의 언어, 고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는 슬픔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시스템에서 꺼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다른 많은 책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책이 있는데, 슬픔에 관한 기술서적이었습니다. 슬픔을 통과하는 길(The Path Through 슬픔)이라는 작품은 마거리트 무 바르(Marguerite Mouvard)라는 여성이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비디오에서 그 책에서 인용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제가 참고 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을 인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Ruth Feldman의 시를 인용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그 시였고, 제가 그것을 얻은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상실의 물이 차올 때, 나는 말씀의 방주를 짓고, 모든 말의 두 부분을 취하여 홍수를 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제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첫 번째 연이었습니다. Marguerite Mouvard는 그 장의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의미, 색상, 강도 및 뉘앙스의 색조를 밝힐 수 있습니다.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는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중이 할 수 없을 때 멘토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들의 생각을 지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한 다음 마침내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애가서의 해석과 평가에 대한 탐구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는 멘토가 대답으로 '예'라고 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미의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인의 슬픔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586년에 남겨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한 메시지였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말했듯이 슬픔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며 슬픔의 대부분의 예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요점은 인간의 슬픔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책 이름을 우리는 애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과 유대 전통에서 이 책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책에서 자주 발견하는 패턴을 따릅니다.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하면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Echa, 그 비명, 그 비명은 애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cha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Kinot 이었습니다.

그리고 Kina는 제가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장례식 애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키노스는 복수형, 장례 애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의 이름이라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은 기도 또는 애도 기도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 설명에 적합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의 이름에는 인간의 슬픔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장례식 애도.

슬픔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슬픔의 과정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우리가 책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장르 중 하나에 적용됩니다. 기도 애도, 아마도 더 존경할 만한 방법, 영적인 방법, 신학적 방법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슬픔을 극복하는 인간의 과정인 키나(Kina), 이 장례 애도는 옷을 찢고 몸이 터지는 것과 같은 모든 육체적 표현을 포함합니다. 눈물 등등. 그래서 실제 제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점, 일곱 번째 요점은 성경적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슬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도가 좋습니다. 애가를 통해 내내 슬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모델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녀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마도 잠시만 아기를 안아주되 오래는 안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 아기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소 불쾌했습니다. 그 다른 아내는 좀 못됐어요.

그리고 한나는 너무 슬퍼했고, 한가운데에 갇힌 불쌍한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썄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실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그가 이렇게 서원하였나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네 앞에 세우리라. 나는 그를 당신의 봉사에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종교적 모델이 있고 Hannah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가두지 아니하고 삼년 동안 간호하다가 그 후에는 네 손에 넘겨 성소에 맡기리라.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기도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열왕기하의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됩니다. 열왕기하 8장 37절부터, 아니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성전의 용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주된 용도는 기도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 역병, 곰팡이, 메뚜기 또는 애벌레가 있으면 많은 일이 잘못되어 수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적군이 그들의 도시 중 어느 곳에서나 그들을 포위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기도든지, 어떤 간청이든지 개인이나 온 백성, 개인이든지 공동체가든지. 모두가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이 집을 향하여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음의 고통, 즉 이 객관적인 위기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집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거하시는 곳인 여기 하늘에서 당신이 마음을 아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행동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원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용도의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도가 폐허가 된 성전의 물리적인 맥락으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요점은 애도가 긴 과정이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슬픔은 계속해서 찾아왔고, 불만과 죄책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은 계속해서 돌아와서 모든 시를 차례로 지배했습니다.

CS Lewis 씨, 저는 그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책자 A Grief Observed는 슬픔 연구에 있어 매우 고전적인 책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반응을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말한 것 중 하나입니다. 슬픔은 폭격기가 원을 그리며 머리 위로 들어올 때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언급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은 회중이 어떻게 생각했고 또 생각해야 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슬픔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슬픔을 통과하는 길(The Path Through 슬픔)이라는 책을 언급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날들을 연속으로 보내고 나면 다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로 물러나거나 발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잡은 기복은 사별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이어받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애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홉 번째 요점은 항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여지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 왜?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

왜 왜? 그리고 이것이 당혹감과 항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그의 책 A Grief Observed에서 그 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그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부재하시므로 곤경에 처할 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가가 끝나는 방식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요점은 불만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가 자체에서 청원이라는 용어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과 9절에서 우리는 시온이 방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시고 원수가 승리하였나이다. 적이 크게 행동했습니다. 적은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적에 대한 항의가 있고, 그들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틀렸습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1장이 끝날 무렵, 그들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당신 앞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나의 모든 범죄 때문에
당신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들도 대하십시오. 그들 측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가 3:59에서
반복하는 고충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제가 저지른 잘못을 보셨습니다, 오
주님. 내 원인을 판단하고 내 편을 들어주세요.

64-66절, 여호와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진노하여
그들을 쫓아 여호와와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우리는 비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자비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언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거기에
항의하고, 도전하세요.

당신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는 날이
언제까지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이 재판관에게 계속 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결국 이
판사는 '나는 그녀에게 정의를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와서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의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는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랫동안 미룰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속히 그들에게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나는 미스터리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저는 영국 작가인 제임스 PD가 쓴 약 15개 정도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저기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Original S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뒤의 제목은 런던 템즈강 옆에 있는 출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인쇄소를 소유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전 세대에서 행해진 과거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속의 특정 장면이다.

거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년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실제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젊은 여성 타이피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영적인 감정이나 열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점원, 이 사무원, 이 유대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총명하고 명랑하고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대인 동료 직원은 그들이 당신을 가스실로 데려갔을 때 당신이 그에게 큰 위안을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수의 신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그게 요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서 이 성경 구절이 가리키는 방식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품을 여지가 있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 적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열한 번째 지점은 전환점, 전환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결은 아닙니다. 결국엔 종결에 도달하길 바라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이 심해지는 전환점이 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새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동쪽에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의 작은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가 5가 도달하는 지점이다.

이 전환점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첫 번째 애도에 대한 자신의 반성을 말하면서 멘토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전환점이 됐다. 그리고 그 전환점과 함께 그는 그 고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출애굽기 34장과 6절과 그곳에서 발견한 보물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스스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와 함께 와서 결국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는 선의의 친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인 『슬픔의 길』에서는 그 점을 언급합니다. 사실, 나는 모든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괜찮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되는 문맥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고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망은 매우 현실적이거나 실제로 경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래, 그게 사실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증으로 삼으면 고난을 겪고 있는 동료 신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그 자체로 버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달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곳은 도달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환점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열두 번째 요점은 앞서 언급했던 상처받은 치유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칼 융(Carl Jung)이 집어내고 헨리 노웬(Henry Nowen)이 그의 저서 <상처받은 치료자>에서 목회자들에게 적용한 고대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멘토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는 주변 사람들의 열린 상처를 치료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멘토가 굴복하는 것을 본 또 다른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 너무 많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너무 많이 스스로 부담하고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멘토가 바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두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것도 사실이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개념과도 잘 맞습니다.

13번째, 애도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참을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극복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이 누리는 사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멘토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장에서 그가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슬퍼해야 합니다.

회중이며, 더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에는 그 자체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넷째, 슬픔은 신앙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믿음을 잃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딸 애니(9세)의 죽음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그의 무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와 그녀가 살았던 지역 전체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윈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 즉 9살짜리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신앙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계속해서 이것이 다윈의 기독교 신앙을 희생시킨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종, 특히 우리의 기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사실, 그의 전문적인 업무는 그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념의 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은 완전히 별개이며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분별력 있는 남성과 여성이 그렇듯이 과학이 종교의 적이라는 오류를 개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니의 죽음에 대한 정의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하고 불합리한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축시키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신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홀로코스트의 결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닥친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Elie Wiesel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이것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홀로코스트를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했어요. Dorothee Sulla는 고통에 관한 책에서 슬픔을 말로 표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슬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자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회자가 방문했을 때 바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난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이몬드는 자살 예방 조치로 어느 날 저녁 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훌륭한 남자였으며, 교회에서 청소년 목사를 도우며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 전, 그의 부모는 두 차례의 쓰라린 타격으로 잇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여자친구가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는 구급차에 실려 잠겨 있는 정신과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날 직원은 목사님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나는 지친 잠에서 레이먼드를 부드럽게 깨웠.

눈이 충혈된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잠만 자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가 이렇게 안전한 형태의 거부를 보여주는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나는 그의 체류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며 곧 외래 환자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나의 유일한 방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또한 이것이 오랫동안 목회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어떤 짧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레이먼드 씨에게 세 단어를 남기고 싶다. 눈물, 대화, 시간'이라고 말했다.

나는 각 단어에 짧은 문장을 추가한 다음 다시 자고 일어나면 그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청년 레이먼드는 절실히 필요했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방문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로와 우울증은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물, 말,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단어가 그의 무의식 속에 씨앗처럼 떨어져 그 후 몇 주 동안 싹이 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에 대한 애도는 빠르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애도 속에서 희망은 솟아난다. 치유의 도구인 희망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을 주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즉 믿음을 잃을 위험은 물론 생명을 잃을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요점인 열다섯 번째 요점은 Gerald Sitzer의 책인 *A Grace Disguised, How the Soul Grows Through Loss*라는 제목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위장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자녀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위장된 은혜로 인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은 부제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은 상실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 어느 시점에서 그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이상한 방식으로 그의 슬픔이 그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의 슬픔이 그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는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랫동안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슬픔이 강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슬픔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참으로 비참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서적 고뇌를 표현한다. 슬픔은 고귀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애도와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세상의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세상의 치유를 바랄 수 있을 때까지 영혼을 확장시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슬픔은 영혼에 유익합니다. 깊은 슬픔은 종종 삶에서 가식, 허영심, 낭비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고통은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덜 어수선해지는 단순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심각한 상실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나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감사를 표하며,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가치 있는 대의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특별하고 평범한 것을 더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즐깁니다. 삶의 평범함. 영화에서 환자의 진정한 필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오만한 의사인 닥터는 갑자기 자신이 환자가 되면서 변화됩니다.

암에 걸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이전에 아픈 몸으로만 대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픔과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확대할 수 있고,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좋은 효과는 결국 사실입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5회 애가와 기독교입니다.